

국내 소식

동자부, 에너지절약 지원 금융자금 확대

올해중 에너지절약시설투자 금융지원액으로 석유사업기금에서 1천4백23억원,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서 2백10억원, 산업은행 주요시설자금을 비롯한 외화대출자금, 신규기계규입자금 등에서 3천4백억원 등 총 5천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동자부의 이같은 '93년도 에너지절약 투자금융지원 방침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과잉설비투자억제를 병행하면서 에너지절약 5개년을 수립한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설비개체를 우선 지원하고 집단에너지사업·제조업부문의외에 수송·건물분야의 절약시설을 설치사업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소비 부분별로 균형있는 에너지이용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절약기술개발실용화, 고효율제품생산보급 등 에너지절약 시책과의 지원연계를 강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90년이후 지원이 중단됐던 대기업에 대해서도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이라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서 연리 10%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소요자금의 60% 이내에서 지원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이 유리한 연리 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밖에도 산업은행 설비자금의 경우 산업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에 이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지원을 우선 취급분야로 설정하여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한편 올해 금융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경우 업체의 에너지절약 투자소요액이 1조1천억원에 달하고 융자소요규모가 약 6천7백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올해의 지원규모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 앞으로 에너지 이용합리화기금 등의 재원조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금융지원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전, 전기공급규정 대폭개정

한전은 신·증설 전기수용신청에 따른 수용가부담 전기공사비를 종전 변전소에서 수용가에 이르는 총 배전선로 전기공사비 대비 25.1%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전기공급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전기를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한전 전기공사비 수용가 부담제도는 수도·통신·가스 등 여타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신규공급을 위해 수용장소까지의 설비설치비의 일부를 수용가가 부담하는 공사부담금제도이다.

현재 전기수용신청에 따른 전기공사비중 발전소와 송변전설비에 관련된 공사비는 한전에서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변전소에서 수용가에 이르는 배전선로공사비는 한전과 수용가가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하고 있다.

한전이 이번에 개정한 수용가부담 전기공사비중 용량공사비 산정기준을 보면 가공선로로 저압일 경우 계약전력 3kW까지 종전 2만5천원에서 6만9천원으로, 3kW초과분은 1kW당 종전 2만원에서 3만9천원으로 각각 인상했으며, 고압 또는 22.9kW이하 특별고압의 경우 신·증설계약전력 1kW당 8천원을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

지중선로로 저압인 경우 3kW까지 종전 10만원에서 12만7천원으로, 3kW초과시 1kW당 4만원에서 4만1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거리공사비는 가공선로로 신설인 경우 신설거리 2백m 초과부터 1m당 5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첨가거리인 경우 2m 초과 1m당 2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지중인 경우 신설거리 50m 초과 1m당 2만5천원에서 2만 7천원으로 올랐다.

수용가부담 공사비는 용량공사비와 거리공사비를 합산 계상된다.

인상된 수용가부담 전기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1백kW이상 수전용량공장을 신축할 경우 고압 이상 전압으로 수전하면 종전에 없던 용량공사비를 80만원에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

한전은 '91년기준으로 볼 때 변전소에서 수용가에

이르는 배전선로 공사비가 총 3천억원 발생했으며 이중 8백만원을 수용가가, 나머지를 한전에서 부담했다.

이번에 조정된 공사비를 적용하면 '91년기준으로 한전과 수용가가 1천 5백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삼성전자, 전동공구시장 본격참여

협회 특별회원 업체인 삼성전자(주)가 그동안 계양전기와 금성기전이 양분해 오던 전동공구시장에 본격참여, 기존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월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부터 전동공구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존업체들이 시장잠식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업체인 계양전기·금성기전은 그동안 삼성의 광범위한 가전제품의 영업활동망을 중시, 앞으로 내수시장을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동공구 내수시장은 기존업체인 계양전기·금성기전과 신규업체인 삼성전자간의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예상돼 기존 시장관도에 커다란 지각변동의 조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 기존업체들은 대리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새로운 영업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7백억원대의 협소한 내수판매를 탈피, 해외 시장구축에 눈을 돌리는 등 신규 수요처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금성계전, 미국에 몰드변압기 수출

금성계전(대표 : 성기철)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운수청이 실시한 지하철 정류기용 대용량 몰드변압기 국제입찰에서 수주에 성공, 200만달러 상당의 몰드변압기(34kV, 5000kVA)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번 입찰은 샌프란시스코 운수청이 미국내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기존의 유입식(油入式) 변압기를 대체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금성계전은 이번 입찰에서 ABB사, SQUARED사 등 세

계적 중전기업체들을 물리치고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국산 몰드변압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금성계전이 이번에 수출하게된 몰드변압기는 지난 89년 완전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해온 제품으로, 에폭시 주형(Epoxy Mold)방식으로 제작되어 소형·경량이면서도 절연성이 뛰어나고 전력손실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유입식 변압기에 비해 안전성이 월등하며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없어, 높은 신뢰도와 무공해성이 요구되는 지하철 정류기용 변압기로는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꼽히고 있다.

해 외 소식

가축오물 연료이용 소형발전소 건설

최근 영국의 한 전력회사는 가축쓰레기를 연료로 한 12~15MW급 소형발전소를 건설, 1만 2천~1만 5천 가구정도의 소규모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발전시스템을 제안했다.

영국남부 글렌포드지역에 세워질 이 프로젝트는 단지 전기를 판매하는 것 외에도 영국내 산간지방이나 농촌에 산재해 있는 잡다한 가축폐기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된다. 또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인 재는 비료로 사용가능하다. 새로운 발전소는 연간 12만톤의 가축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발전소의 입지선정, 환경문제, 플랜트 설계의 등도 집중적으로 검토해 앞으로도 수개지역에 가축쓰레기 소각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을 건설할 방침이다.

웨스팅 하우스, 유도전동기 개발

미국 웨스팅 하우스 모터사는 최근 전동기의 극을 변동시킬 수 있는 유도전동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구리회전구조로 되어 있으며 엑포시절연으로 에너지 절감에 유효,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